지역 예술단체들의 취약점 중 하나가 공연 마케팅이다. 작품 포스터 부착하고, 지인들이 후원한 광고를 팸플릿에 싣는 게 고작이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할인 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제작비 회수의 가장 기본인 티켓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단체들이 눈길을 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연 마케팅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OK 캐시백, 케냐 등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중인 DKB의 뮤지컬 '두드림 러브'.

지역 공연계 마케팅에 눈 뜨다

극단 '연인'·문화공방 DKB·전남도립국악단
금호고속·OK 캐시백과 제휴 티켓 판매 홍보

◇금호고속·OK 캐시백 등과 공동마케팅= 올초 창작 뮤지컬 '정인'을 무대에 올렸던 극단 '연인'의 행보는 지역 단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사례로 눈여겨 볼만하다. 협회나 대형 기획사가 아닌 개별 극단이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한 것은 드문 사례다.

11일간 15회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연인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작비 2천 500만원을 거의 회수했다. 주변에서는 적자를 예상했지만 문예진흥기금 지원액수가 15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공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극단 대표이자 주연배우 김종필씨가 발로 뛰며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다.

극단 측은 공연 3개월전에 이미 포스터를 완성, 이때부터 홍보에 들어갔다. 공연 시작 두달 전부터는 배너도 부착했다. 특히 '정인'의 홍보 입간판과 포스터는 광주 뿐 아니라 순천 등 지역 버스터미널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금호고속과의 공동 마케팅 덕이었다. 양쪽은 연극 티켓과 버스표를 함께 예매할 경우 버스 티켓을 20%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단순하게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훨씬 의미있는 이벤트였다. 금호고속측은 버스 티켓과 연계한 '문화복합권' 제도를 운영할 단체를 찾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연인'이 처음이었다.

김 대표는 또 공연장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대형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와 'T.G.I 프라이데이'에도 무작정 찾아갔다. 연극 홍보물에 광고를 해주는 대신 엔젤리너스는 티켓 소지자에게 1만 6천원 상당의 커피와 케익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천사 티켓'을 발행했다. 'TGI 프라이데이'에게는 치킨 쿠폰 200장을 받아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다.

◇전남도립국악단 홍보책자·동영상 제작= '죽이는 이야기', '70분간의 연애' 등 서울산(産) 소극장용 작품을 한달씩 장기 공연중인 문화공방 DKB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현재 DKB가 유·스퀘어문화관에서 공연중인 '두드림 러브'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OK 캐시백 포인트(5천점 이상)로 관람이 가능하다. 또 100여개가 넘는 체인점을 보유한 케냐 에스프레소와도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는 케냐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20% 할인 혜택을 주는 선에 그쳤지만 조만간 50개 업소에서는 직접 티켓 구매도 가능하게 된다.

또 롯데마트 아울렛, 헤어캇토, 씨너스, 빕스 등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주은행과 제휴도 시작했다. 전 지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광주은행 카드 결제시 20% 할인 혜택, 청구서 발송시 정보를 제공한다. DKB측은 프로모션 업체가 20개 정도 갖춰지면 장기 공연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체들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전남도립국악단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국악단은 지난해 70여페이지 올컬로 홍보책자 '남도풍류'를 제작했다. 영문으로도 제작된 책자에는 국악단의 대표작품을 소개했으며 1천 400여회에 이르는 공연 내역도 기록, 국악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또 최근에는 4분짜리 홍보 동영상을 제작, 남도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와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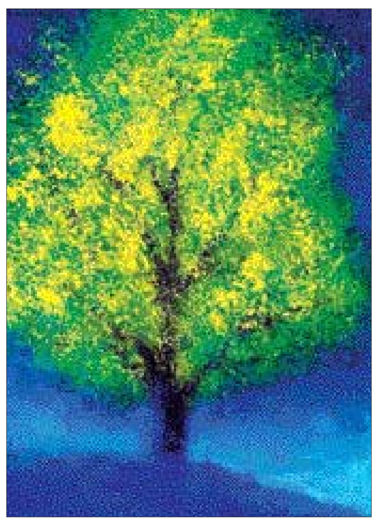
김종필 대표는 "지원금 제도가 생기고부터 많은 예술인들이 티켓 판매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열악한 극단 현실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다 보니 힘들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의 길목 화폭에 터뜨린 꽃망울

갤러리D 내달 4일까지
봄날 꽃과 나무전

오지호 작 '칸나'



한희원 작 '플라타너스'

화사한 봄의 길목,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이 화폭을 먼저 물들였다.

광주 갤러리D는 오는 4월4일까지 봄꽃과 새순을 틔운 봄나무 그림을 모은 '봄날 꽃과 나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오지호, 이대원, 오승우, 오승윤, 송용, 강연균, 최쌍중, 최영훈, 진원장, 한희원, 황순칠, 도성욱, 오수경씨 등의 작품 29점을 선보인다. 붉은색과 초록색의 안정적인 배치가 돋보이는 한국 인상주의 회화의 대가 오지호 화백의 '칸나' 등 수준 높은 작품이 대거 전시된다.

또 최영훈의 '장미'는 시각적 화사함과 질감을 통한 풍부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빼어난 작품이며, 동명의 작품인 송용의 '장미'는 차분하고 따뜻한 정감을 전해준다.

한희원의 '플라타너스'는 푸른빛으로 장식된 하늘과 언덕을 배경으로 풍성한 잎을 드리우고 있는 나무와 조화가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 밖에 사실적인 묘사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리는 숲의 풍경을 묘사한 도성욱의 작품 등도 볼만하다. 문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원의 행복 누리세요

亞공연예술위 8일 광주문예회관

'천원의 행복을 누리세요.'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와 광주시가 함께 진행하는 '천원의 낭만' 3월 행사가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스프링 & 스트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시아나인스트링챔버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한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제 3번 K17', 요한스트라우스의 '피차카토 폴카' 등이다.

또 오보에 연주자 배미희씨가 찬조출연해 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선보이며, 소프라노 최순아씨와 테너 임대근씨는 '오 솔레미오', '아베 마리아' 등을 선사한다. 입장권은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천원의 낭만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 노래 불러보세요

우리가곡부르기 12일 티브라운

제18회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호남신학대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그리운 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봄이오면', '봄처녀', '나물 캐는 처녀' 등 다양한 봄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박원자씨 시에 오숙자씨가 곡을 부친 '섬진강'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오카리나 연주자 김미자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한다.

그밖에 소프라노 이계화씨가 특별출연하며 2009 공무원 음악대전에서 2위를 차지한 이용우씨와 박진영씨 등 회원들의 무대도 마련돼 있다.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모임을 갖고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다. 4월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김소영씨를 초청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다. 문의 011-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